내 삶에 변화를 일으킨 책, 그에 뜨거운 경의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열이란 무엇인가요.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열렬한 감정이지요. 당신 안에 정열이 불타고 있다면 젊음이 곁에 머무를 것이고, 차디차게 식은 정열만이 남았다면 무력에 쫓기게 될 테죠. 들끓는 애정으로 책을 만나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삶이 그 증명이라오.

글_ 이정원 **사진_** 최충식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은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현장 노동동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것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정의당의 대표 겸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내 즐거웠던 책을 가슴에 새기다

흔들리는 버스쯤이야 대수롭지도 않았다. 가방 안 어딘가에 넣어둔 걸 능숙하게 꺼내 들었다. 이리저리 요동치는 머리카락도 막질 못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눈이 머물던 곳을 단박에 찾아냈다.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매번 그 길을 함께 달렸던 단짝. 책은 교복을 입기 전부터 교복을 벗은 후로도, 늘 이정미 대표 곁에 머물러왔다. '안녕, 나의 소울 메이트. 모든 게 너다워졌어.' 어느 노래의 가사와도 같았다. 책은 이정미가 이정미답게 설 수 있도록 손잡아주었다.

"중학생 무렵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고향인 부산을 떠나야 했어요. 피난 오다시피 도착한 곳은 인천 외할머니의 단칸방이었죠. 단칸방에 얹혀산다는 건 책 따윈 사치라는 뜻이에요. 책보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러다 고등학생 때 아주 싼 가격에 팔리는 삼중당 문고판을 알게 되면서, 한국 단편문학에 발을 들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책을 친구들과 돌려 읽는 게 왜 그리 재미나던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전영택의 『화수분』, 김동리의 『무녀도』 등등 우리네 근대문학을 줄줄이 만났어요. 쌀알보다 작은 글씨가 세로쓰기로 촘촘히 박혀있던 책이었는데…. 노동운동을 시작하고는 미처 챙길 여유가 없어서, 그 즐거웠던 책들을 간직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이제 기억으로만 붙잡고 있는 책이 됐지만, 절대 잊지 않았다. 앞표지를 장식한 투박한 그림과 제대로 표백되지 못해 누런빛이 남은 종이. 약간은 거친 책 절단면이 손가락 첫마디에 와 닿는 감촉까지 모두. 초등학교 시절 만났던 책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머니가 안겨준 오십 권짜리

기쁨이나 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눈과 귀로 얻는 지식까지도 책에서 얻었습니다.
나의 배움에서 책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내 삶의 이야기

위인전은 마음속에 단단히 박제돼 있다. 새하얀 표지의 양장판 『위인전집』은 혹부리 영감의 노래 주머니만큼 신기했다. 보고 또 보아도 그들은 멋졌다. 그들은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교실을 꽉 채운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는 꿈도 못 꾸는 선생님을 대신했다. 그중에서도 『헬렌 켈러 자서전』은 이정미 대표가 가장 아끼는 책이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현재를 극복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직접 정한 세례명도 오틸리아였어요. 성녀 오틸리아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버림받았지만, 세례 때 시력을 회복한 분이거든요. 좌절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헬렌 켈러를 동경하면서, 이렇게 세례명까지 영향을 받은 겁니다."

노동 현장을 지키는 동안
이정미 대표를 거쳐 간
책은 수없이 많았다
고단함에 지칠 때면
신념을 꺾지 않고 살아온
이들의 삶이 힘이 됐다

지혜의 책 숲에서 방향을 조율하다

이정미 대표의 책상은 365일 책 질량의 법칙을 고수 중이다. 양껏 독서를 즐길 물리적 시간을 찾아내지 못한 그의 고육지책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터.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책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제목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으면 나한테 용기를 줄 텐데.' 하며 아쉬움을 달래는 게다. 문제는 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분명 책더미를 정리했건만, 어느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며 큰일이라는 이정미 대표. 마치 색색들이 그림책을 처음 본 아이처럼 무장해제 된 웃음을 지었다. 순간 그의 이름 뒤에 따르던 많은 수식어가 사라졌다. 보드랍고 따뜻한 애서가만이 보였다.

"보통 스무 살이 되면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당시에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다방에서 커피를 사주면서 운동권 동아리 가입을 권하곤 했는데요. 저는 직접 동아리를 찾아갔어요. 게다가 화장에 귀걸이까지 하고 다니는 통에, 날라리 운동권으로 유명해졌죠. 그때는

국회탐방 온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화장이나 액세서리를 취업 준비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4월에 학내시위가 벌어졌고, 최루탄 가스에 고통 치는 학우들을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학교 수돗가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선배가 이렇게 첫말을 건네더군요. '너 전태일이라고 아니?'

한 시간을 전태일의 삶에 대해 들었다. 그때 이정미 대표는 세상의 이면을 봤다고 했다. 더는 술을 마시고 놀 수 없다는 생각에, 뭘 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결론은 자퇴 후 노동 현장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충격은 컸다. 하지만 시위에 참여했다 유치장에 갇힌 딸을 보고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학교와 시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기에 시위를 선택했죠. 어머니께서 그럼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부산이 고향인 가족을 모아놓고 당시 김대중 후보를 찍자고 하신 분이니, 진짜 어머니다운 결단이셨어요."

딸의 인생을 스스로 살도록 지지해준 어머니 덕분에 이정미 대표의 열정은 뜨겁게 타올랐다. 책을 탐독하는 시간도 늘었다. 노동운동의 불꽃이 된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은 그의 인생 방향을 비틀었다. 도시 빈민의 참상을 그린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노동운동에 대한 결의를 공고히 했다.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은 당시 체제에 눈 뜨게 했다. 특히 베트남 전쟁사는 따로 복사해 들고 다니며 읽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는 '미국은 절대 선이자 최고의 국가라는 무조건적 믿음이 부서졌고, 국제질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강국의 행위에 현실적인 시선을 갖게' 됐다고 했다. 베트남을 알고 싶거나 제국의 속성이 궁금한 오늘의 청춘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라 덧붙였다.

책으로 고단함을 녹여 힘을 얻다

노동 현장을 지키는 동안 이정미 대표를 거쳐 간 책은 수없이 많았다. 고단함에 지칠 때면 신념을 꺾지 않고 살아온 이들의 삶이 힘이 됐다. 대표적인 책이 60년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선 사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미 대표

이공 청년들을 그린 구에 반봉의 『사이공의 흰옷』. 또 나치 수용소에서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다. 그는 두 책에서 무얼 보았던 걸까. 사이공의 흰옷에 실제인물을 위해 썼다는 시 한 구절이 답이 되리라. '모든 흔들리는 것들이여, 잘 가라.'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와 고통 사이에 공간을 둘 수 있어야 고통을 견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는 대신 고통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힘. 그게 사는 지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 아니네요. 다른 이들처럼 도달하려고 노력 중이죠. (웃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 너무 애쓰지는 말자고요. 인생에 답은 여러 개잖아요."

세상일에 대한 이정미 대표의 관심은 울타리가 없다. 노동운동 외에도 여성, 동물, 환경, 정치 등에 마음을 얹어왔다. 각 분야의 책도 손 가까이에 두었다. 그중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에 대한 그의 생각은 참 명쾌했다. 인간 대부분은 종 차별적이라 말하는 급진적 성향의 책이지만, 한 번쯤 극단의 끝까지 가봤다가 현실로 되돌아와도 나쁘지 않다고.

"여성학 공부 초기에 읽은 캐롤 타브리스의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는요. 남녀차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지닌 남성 중심적 태도와 여성이 더 낫다는 주장 모두를 비판하고 있죠. 진일보한 균형적 시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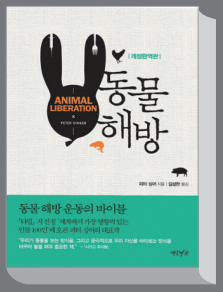
파커 J.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도 제목과 달리 꽤 재미난 책입니다. 마음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파머의 냉철한 분석도 좋지만요. 베버의 책은 세 번이나 완독할 만큼 매력적이에요. 이 책에서 발견한 정치인의 우선 덕목은 신념 윤리를 기반으로 책임 윤리를 행하는 철저한 균형 감각이죠. 정치할 때 뭘 염두에 두어야 하나 고민된다면, 베버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신의 독서 생활에 대해 한참 부족하다며 야멸차게 평한 이정미 대표. 그럼 자동자판기처럼 툭 하고 질문을 건네면 톡 하고 나오는 책 이야기란 뭐란 말인가. 아무래도 이 인색한 애서가의 서재에서 한껏 게으름을 피워야 할까 보다. 혹 독서 에너지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의 서재만큼 넘치는 곳은 없을 테니.

Book

이정미 당대표의 '나를 밝힌 책'

01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 이성과 힘 | 2000



02
동물 해방
피터 싱어 | 연암서가 | 2012

03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김만권 | 여문책 | 2018